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을 꿈꾸는 기능인들의 축제로 2000여명의 선수를 포함하여 1만 3천여명을 동원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 꿈꾸다

## 전북도,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전국 6위 달성 쾌거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을 꿈꾸는 기능인들의 축제로 2000여명의 선수를 포함하여 1만 3천여명을 동원하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라도에서는 이번대회에 36개 직종에 103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금메달 1, 은메달 10, 동메달 10개 등 종합점수 884점을 획득하고 전국 6위를 기록하여 지난해 9위보다 3단계 상승한 성적을 거두었다.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김주승(18, 전주공업고등학교)은 "휴일, 방학, 명절에도 쉬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결과이다. 오랜 시간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과 지도교사 선생님께 수상의 영광을 드리며, 앞으로도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상 소감을 밝혔다.

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입상선수 지도교사에게는 전라북도 기능경기위원회에서 소정의 격려금과 해외연수 특전, 유공포장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1, 2위 입상자는 선발전기를 거쳐 2021년 중국(상하이)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이 면제된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도가 거둔 성적이 지난해보다 3단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특성화고 중심으로 전북도와 도교육청,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기능인력 양성에 힘쓴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도에서는 올해부터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도내기업에 취업 시 월

60만원씩 2년간 취업장려금을 지원 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통해 도내 우수기능인의 도내 정착과 인식 제고를 장려하고 있다.

시상식 행사에서는 전북도 신인식 일자리정책관이 부산시로부터 대회를 인수받고, 내년 전북에서 개최되는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내년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중심으로 도내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선수단을 포함한 총 1만 4천여명이 도내에 머물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 그동안 훈련에 매진한 선수와 지도교사의 노고를 치하하며, 2020년 전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5회 대회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기관들이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포터즈 모집... 내달 8일까지 도민 누구나 지원 가능

사)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 지원위원회(이사장 김동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제2기 도민 서포터즈를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는 스카우트 활동과 세계잼버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세계잼버리가 개최되는 2023년까지 전국적 관심도 제고와 개최 열기 확산, 세계잼버리 참여 촉진 등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신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11월 8일까지 이메일(jombuk2023jamboree@naver.com)을 통해 접수하면 되고, 제2기 잼버리 서포터즈 위촉식은 11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활동내용이나 신청 방법 등은 전북도청 잼버리추진단(280-3618)에 문의하면 된다.

서포터즈에 선정되면 사)범도민지원위원회 주관 잼버리 행사에 우선 초청되며, 잼버리 정보제공과 활동 우수자 시상, 서포터즈 활동복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범도민지원위는 2023년까지 매

년 세계잼버리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총 2,023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는 확대된 잼버리 서포터즈와 함께 세계잼버리 붐조성 및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더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범도민지원위 김동수 이사장(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2023 세계잼버리를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인 잼버리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세계잼버리 서포터즈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 한국 서원의 우수성 전세계로 널리널리

###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성대히 열려 공로패 증정·유명가수 축하무대 등 축제분위기로 후끈

지난 1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가 정읍 무성서원에서 1천여 명의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 속에 성대하게 개최됐다.

정읍시립농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열린 행사에서는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고하는 고유제와 세계유산 포지식 제막식, 기념 식수,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큰 역할을 수행한 관계자에게 공로를 기리기 위해 공로패를 증정했다. 기념식 후에는 김중서와 김나니, 박주희, 최석준 등 인기 가수와 이진수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가곡 공연이 이어져 축제분위기가 한껏 달아 올랐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안전하게 보존관리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무성서원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 사업을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용범 전북도 부지사는 축하사에서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국 서원의 우수성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쾌거다"며 "앞으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현대적 계승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 새만금개발청,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의견 수렴 나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이 "새만금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11일 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이 가속화되고 본격적 궤도에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만금을 아끼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9 새만금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11월 1일 개발청사 4층 대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개 주민회의로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새만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semanage.um.go.kr)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오는 18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등을 주제로 선정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김현숙 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1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참여 방안, 지역민원 해결 대책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사업 민관 협의회 운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강화 등을 시행했다. /뉴시스

##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성인여성의 배움터인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이영희)가 교육의 기회를 놓친 도내 성인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도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여

성이 대상이며, 모집기간은 14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중·고교 과정 각 30명씩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재학생에게는 중학교 학비 면제, 고등학교 학비 감면, 장학금, 자격증 취득, 상급학교(대학교) 진학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일반학교와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영희 교장은 "우리 학교는 만화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도립여성중고는 학생들의 화합의 장인 추계체육대회와 학습발표회를 앞두고 있으며, 새일교지 제작과 졸업식을 통해 2019학년도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육군 35사단, 오늘부터 전북 전역서 전술훈련 전개

육군 35사단은 오늘부터 18일까지 전북 전역에서 사단 전술훈련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35사단과 전북도, 전북경찰청, 예비군 등이 참가하며 민·

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특히 적군의 해안침투 상황과 다중이용시설 테러 및 피해 복구, 대량 인명 피해 등 후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35사단은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후방지역 전쟁 지속능력 및 임무수행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35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 병력과 장비 이동에 따른 사고 예방과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해 도민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전북도, 아동·여성폭력업무 관계자 역량 강화 실시

전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지난 1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아동·여성폭력업무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위기상황의 아동·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전문적

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예방 및 재발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노동관리연구소 이사원소장을 초청해 '분노관리'라는 주제로 도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60여명의 시설 종사자 및 관계 공

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전북도(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전북지역 아동·여성폭력업무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아동·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직무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2005년부터 매년 역량교육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